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1.한의사의 입지입니다. 현직 한의사분들을 만났을때 조금 충격이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의원을 선호해서 종종 가던 한의원 원장님께서 한의학이 의학의 하위호환이 느낌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한의원을 가는 이유인 근골격 질환은 정형외과에서, 다이어트, 미용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더 큰 시장의 파이로 의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덧붙혀 한의사 원장님께서 차라리 진짜로 의학에 뜻이 있다면 1년더 공부해서 메인스트림인 의사에 도전해보는 것도 젊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한의사에 비해 무조건 의사가 좋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워라벨, 페이 같이 한의사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